

손마른자를 고치신 예수님(막 3:1~6)

- (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 (2)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 (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 (4)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 (5)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 (6)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1.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동안의 행적이 못마땅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거리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2. 손마른자(우리말성경: 손이 오그라진 사람)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4)
예수님이 어떠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3.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합니다(6).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다면, 어디 쪽에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바리새인입니까?